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6, pp.253-288
<https://doi.org/10.29212/mh.2018..106.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18세기 전반 충청 수군의 위상과 운영 실태

-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가칭 「충청수사군무수첩」을 중심으로 -

송기중*

1. 머리말
2. 충청 수군의 설치와 위상 변화
3. 18세기 전반 충청 수군의 운영실태
4. 맺음말

1. 머리말

조선은 반도라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해양으로부터 침입이 많은 국가였다. 특히 일본의 빈번한 침입은 해양방어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조선은 건국 초부터 연해 지역의 방어체제 정비에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특히 충청도에 주둔한 수군은 충청도 자체 방어를 담당할 뿐 아니라, 경기·전라·경상도 등 다른 지역의

*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강사

수군을 지원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그 위상이 점차 강조되는 추세였다.

지금까지 충청 수군에 관한 연구는 주로 진의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충청수영과 소속 수군진의 위치를 고증하거나¹⁾ 평신진,²⁾ 안흥진,³⁾ 소근포진⁴⁾ 등 개별 수군진에 대한 운영 실태를 다룬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외에도 19세기 충청 수군의 운영 실태를 살펴본 연구도 있다.⁵⁾ 이로 인해 충청 수군의 운영 실태에 대해 많은 부분이 밝혀졌으나, 미진한 측면이 없지 않다. 특히 충청 수군은 19세기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17~18세기의 상황은 여전히 연구의 공백기로 남아 있다. 또한 충청 수군의 군선 배정 원리나 재정 운영에 대한 부분도 보다 정밀하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18세기 전반 충청 수군의 운영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립해양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가칭 「충청수사군무수첩」(이하-수첩)을 분석할 것이다. 이 수첩에는 지휘관의 임기, 군선, 병종, 지출, 量田, 공문서 서식 등 충청 수군에 관련된 다양한 사항이 수록되어 있다. 이 수첩은 숙종 37년~42년(1711~1716) 사이에 작성된 것인데, 지금까지 발견된 충청 수군에 관한 자료가 19세기 것이 대부분임을 고려하면, 18세기 전반 충청 수군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⁶⁾

- 1) 황의천, 「朝鮮時代 忠清水營과 屬鎭의 위치에 대한 고찰」, 『保寧文化』 16, 보령문화연구회, 2007(a); 황의천, 「충청수영과 오천」, 『保寧文化』 18, 보령문화연구회, 2009(b).
- 2) 서태원, 「朝鮮後期 忠淸道 平薪鎭 研究」, 『중앙사론』 34, 중앙사학연구회, 2011(a).
- 3) 서태원, 「朝鮮後期 忠淸道 安興鎭의 設置와 變遷」, 『歷史와 實學』 50, 역사실학회, 2013(b); 서태원, 「조선후기 충청도 安興鎭의 구조와 기능」, 『歷史와 實學』 52, 역사실학회, 2013(c).
- 4) 서태원, 「朝鮮時代 忠淸道 所斤浦鎭의 변천」, 『歷史와 實學』 61, 歷史實學會, 2016(d); 서태원, 「朝鮮後期 忠淸道 所斤鎭의 구조와 기능」, 『사학연구』 124, 한국사학회, 2016(e).
- 5) 민병선, 「19世紀 忠淸水營의 運營과 機能」, 중앙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12.

이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18세기 전반 충청 수군이 보유한 군선의 배치 실태이다. 충청수사는 충청 수군의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휘하 수군의 船種 및 배치 실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군선 배치 실태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⁷⁾ 둘째, 충청수영의 재정이다. 충청수사는 주둔지인 수영의 책임자를 겸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충청수영의 재정 운영 사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를 소개하고 해제함으로써 지금까지 베일에 싸여 있던 18세기 충청 수군의 운영 모습을 밝히고자 한다.

6) 이 자료는 2015년 국립해양박물관이 민간에서 구매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열람하게 해주신 국립해양박물관과 담당자 박선영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자료에는 제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이 자료는 첩자 형태로 되어 있어 휴대가 간편할 뿐 아니라 충청수영과 소속 수군에 대한 현황과 각종 규정을 언급하고 있음으로 충청수사가 부대 현황 파악을 위해 가지고 다녔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임의적으로 「충청수사근무수첩」이라 지칭하였다. 이 자료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작성 시기를 비정할 수 있다. 첫째, 평신진이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자료는 적어도 평신진이 설치된 숙종 37년(1711) 이후에 작성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각 시기별 군선 추이의 비교이다. 이 자료에 군선 수를 살펴보면 전선 13척, 귀선 1척, 방패선 13척, 병선 20척, 사후선 41척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군선수를 영조 22년(1746)에 발간된 『속대전』의 군선 수와 비교해 보면, 두 자료는 전선 4척과 방패선이 8척이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충청수사근무수첩」에 서천·임천·한산·평신진에는 전선 1척, 병선 1척, 사후선 2척이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속대전』에는 방패선 2척-병선 1척-사후선 2척으로 기술되었던 것이다(부표 참조). 그렇다면 두 자료 어떤 자료가 먼저인가? 숙종 42년(1716) 8월의 『승정원일기』 기록에 따르면 서천·임천·한산·평신진에 배치된 전선은 숙종 42년(1716) 8월에 방패선으로 개작되었다(『承政院日記』 497冊, 肅宗 42年 8月 24日 “忠淸水使則以爲 本營及各邑鎭戰船宜仍存 而舒川韓山山川三郡及平薪津 船滄皆甚不好 其戰船可改作防牌船”). 이 두 가지 근거를 통해 이 자료는 숙종 37년(1711) 이후에 작성되었고, 숙종 42년(1716) 이전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7) 지금까지 충청 수군의 군선 배치를 알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는 영조 22년(1746) 『속대전』이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이보다 이른 시기의 군선 배치 실태를 알 수 있다.

2. 충청 수군의 설치와 위상 변화

충청도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이에 국초부터 이 지역에는 수군이 설치되고 지휘체제가 마련되었다. 이 시기 충청도에는 수군도안무처치사 1원, 도만호 2원, 만호 5원 등 8명의 수군지휘관이 주둔하였다. 당시 이 지역 수군 지휘체제를 살펴보면, 당시 충청도 수군의 최고 지휘관은 도안무처치사였다. 도안무처치사는 보령현 서쪽 대회이포에 주둔하였다. 도안무처치사 휘하에는 좌·우도만호가 있었다. 좌도의 도만호는 태안군 서쪽 오근이포에 주둔하였고, 파치도·당진·대진 만호를 거느렸다. 우도의 도만호는 남포현 구정에 주둔하였고 서천 만호와 고만량 만호를 휘하에 두었다.⁸⁾

진관체제의 확립은 충청 수군의 지휘체제가 변화하는 기점이었다. 진관체제는 전국 8도를 여러 개의 진관으로 구분하고, 중요한 지역과 인접 지역을 각각 巨鎮과 諸鎮으로 설정한 후에, 거진이 제진을 통솔하는 지역방어체제였다. 진관체제의 실시로 세조 12년(1466) 수군도안무처치사는 수군절도사로, 수군도만호는 수군첨절제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충청 수군의 지휘체제가 정비되었다. 그리고 이 때 정비된 사항은 『경국대전』이 발간되는 성종 연간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표 1〉 성종 연간 충청도 수군진의 군선 및 병력 배치 현황

진관	진	지휘관	군선					병력		
			大	中	小	無軍小	합계	호수	보인	합계
소근포	수영	수사	4	8	10	10	32	1,100	3,300	4,400
	소근포	첨절제사	2	6	3	8	19	610	1,830	2,440
	당진포	동첨절제사	2	7	3	4	16	670	2,010	2,680
	파지포	동첨절제사	1	3	3	3	10	350	1,050	1,400
마량	마량	첨절제사	1	6	4	10	21	560	1,680	2,240
	서천포	만호	1	1	1	5	8	170	510	680
합계			11	31	24	40	106	3,460	10,380	13,840

典據：『經國大典』卷4, 「兵典」.

8) 황의천, 앞의 논문(a),

성종 연간 충청 수군은 수영을 중심으로 소근포와 마량 등 두 개 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근포진 첨절제사 휘하에는 당진포 만호와 파지포 만호가 속해있었고, 마량진 첨절제사 휘하에는 서천포 만호가 속해있었다. 이들 지휘관 휘하에는 군선과 수군이 배속되어 있었다. 당시 충청 수군의 주력 전투함은 猛船이었다. 맹선은 왜의 침입을 대응하기 위해 세종 연간 개발된 군선으로 크기에 따라 大·中·小로 나누어져 있었다. 또한 수군의 배치 여부에 따라 일반 맹선과 무군맹선으로 구분하였다.⁹⁾ 성종 연간 충청 수군이 보유한 군선은 106척 정도였는데, 이중 충청수영에 32척, 마량과 소근포진에 각각 21척과 19척, 당진포·파지포·서천포에 각각 16척·10척·8척 등이 분산 배치되어 있었다.

이 시기 수군진에 배치된 수군 숫자는 보유한 군선 수에 따라 정해졌다. 당시 맹선에는 대·중·소 등 규모에 따라 호수 80명, 60명, 30명을 각각 배치되었으며,¹⁰⁾ 호수 1명에게는 보인 3명이 배치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하여 당시 충청도 수군의 숫자를 추론해보면, 충청 수군은 총 13,840명이었다. 이중에서 호수는 3,460명, 보인은 10,380명으로 추계할 수 있다. 수군이 가장 많이 배치된 수군진은 충청수영으로 4,400명이었으며, 적게 배치된 진은 서천포진으로 680명이었다. 이들 수군은 2番으로 나누어 6개월씩 입역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통제영과 통어영의 설치는 충청 수군의 위상이 변모하는 주요 기점이었다. 임진왜란 직후 조정에서 염려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일본의 재침이었다. 이에 조정은 임진왜란 당시 설치된 통제영을 상설화하는 한편, 전라좌수사가 겸임하던 통제사를 경상우수사가 겸임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이러한 지휘체제 개편으로 충청 수군은 자체 방위 외에도 전라·경상도 수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다. 이후 북방정세가 어려워지자 조정에서는 황해도에서 강화도 북쪽을 통해 한

9) 김재근, 「朝鮮初期의 軍船」, 『朝鮮王朝軍船研究』, 일조각, 1976, 52~56쪽.

10) 『經國大典』卷4, 兵典.

양으로 들어오는 길목을 방어할 목적으로 통어영을 교동에 설치하였다. 이로 인해 충청 수군은 경기 수군을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조선 수군이 ‘兩營體制’로 개편되자 충청 수군은 충청도 자체 방위 뿐 아니라 주요 거점의 방위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수군방어체제의 개편은 충청 수군의 관할권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인조 21년(1643) 국왕은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湖西舟師는 남방에 변이 있으면 남방에서 쓰고 江都[강화도]에 일이 있으면 강도에 서 쓰는 것이 모두 편한 것 같다. 고치지 말고 이에 의거해 시행하여, 난에 임했을 때 어려운 폐단을 없게 하라¹¹⁾

인조는 북방에서 적이 쳐들어와 강화도가 위험해질 경우 충청 수군은 통어영에 소속시켜 활용하고, 일본군이 쳐들어와 남쪽에 문제가 생기면 통제영에 소속시켜 활용하라고 지시하였다. 이 결과 통제영과 통어영 간에 충청 수군에 대한 관할권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북방의 위기가 없어지면서 충청수영은 점차 통제영의 관할로 들어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후기 충청 수군의 위상변화와 함께 수군진의 개편도 이루어졌다. 수영·소군포·마량·서천포 등은 조선후기까지 별다른 변경 없이 그대로 이어졌다. 이에 비해 파지포와 당진포는 폐지되었다. 파지포와 당진포의 폐지 시기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광해 1년(1609) 이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¹²⁾ 그 대신 안흥진과 평신진이 새롭게 설치되었다. 안흥진은 조선 전기에 安興梁戍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임진왜란 연간 충청도가 강조되면서 이곳에 만호가 설치된 것으

11) 『承政院日記』 85冊, 仁祖 21年 6月 24日. “湖西舟師 南方有變 則用於南方 江都有事 則用於江都 似乎兩便 勿爲撓改 使之依此施行 俾無臨亂掣肘之弊”.

12) 서태원, 앞의 논문(a), 104쪽.

로 보인다. 광해 1년(1609) 안흥진은 첨절제사진으로 승격되었다. 이후 안흥진은 강화도의 방어체제가 정비되면서 강화도를 지원하는 곳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로 인해 안흥첨사는 효종 7년(1656) 新鎮으로 이동했고 성이 축조되었다. 하지만 안흥진은 방어 문제로 현종 9년(1668) 舊鎮으로 복귀하였다. 숙종 연간 안흥진은 방어영으로 승격되었다가 복잡한 과정을 거쳐 다시 첨사진으로 강등되었다.¹³⁾ 이후 숙종 28년(1702) 중국에서 적 침입에 관한 咨文이 도착하자 조정에서는 해안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수군진의 설치를 논의하였다. 이로 인해 숙종 31년(1705) 충청도에도 진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그 결과 항금진이 새롭게 설치되었다. 하지만 충청수사 全百祿이 항금진의 포구에 커다란 돌이 많아 부두를 만들기 곤란하다고 지적하자, 조정에서는 숙종 37년(1711) 항금진을 평신으로 이동시키고 이름도 평신진으로 바꾸었다.¹⁴⁾ 평신진 설치 이후 충청도에서 수군진의 개편은 한동안 논의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충청수영·안흥진·소근진·마량진·평신진·서천포진 등 6개 진이 충청도에서 운영되는 체제가 완성되었다.

군선 배치 형태도 변화하여, 맹선이 전선·귀선·방선 등으로 대체되었다. 전선은 명종 연간에 개발되어 임진왜란에서 큰 활약을 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였다. 이런 상황에서 17세기 전반 충청도에도 전선이 배치된 기록을 확인된다.

신이 三道를 모두 조발하여 변란에 대비하게 하는 戰船의 수는 62척인데, 이 중 충청도의 唐津[浦(역자)]·所斤·馬梁·安興·舒川[浦(역자)], 전라도의 金甲·蛇渡[船], 경상좌도의 西生浦·開雲浦·釜山浦·多大浦·水營3船·包伊浦, 우도의 唐浦·三千鎮·加背梁·平山浦·曲浦·尙州浦 등 19척은 너무 심하게 썩어 바다에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명하여 개조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¹⁵⁾

13) 서태원, 앞의 논문(b).

14) 서태원, 앞의 논문(a), 233~235쪽.

15) 『啓本謄錄』 萬曆 34年(宣祖 39, 1606) 4月 14日. “南邊防備 專靠舟師 而臣所管 戰艦 通三道調取待變者 元數六十二隻內 忠淸道唐津所斤安興舒川 全羅道 金甲蛇

선조 39년(1606) 당시 삼도 수군은 전선 62척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운룡은 전선의 이름을 수군진 이름으로 호칭하고 있다. 즉 서생포는 서생포 소속 전선, 개운포는 개운포 소속 전선을 지칭했다. 수영 3선은 수영에 배치된 세 번째 전선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임진왜란 직후 충청도 수군진인 당진포·소근포·마량·안흥·서천포에 이미 전선이 배치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충청도 수군진에는 방패선이 추가로 배치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임진왜란 이후 이 지역 수군방어체제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읍전선’의 설치이다. 읍전선은 군현에 배치된 군선을 의미한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 조선전기에는 군선이 수군진에만 배치되어 있었는데, 명종 연간부터 전라·경상도 군현에도 군선이 배치되기 시작하였다.¹⁶⁾ 전라·경상도 군현에 배치된 군선들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의 주요 전력으로 활용되었다. 충청도 군현에는 군선이 언제부터 배치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인조 연간부터 확산된 것은 분명하다. 인조 13년(1635) 비변사의 언급을 살펴보자.

지난번 탐전에서 공청도의 戰船을 추가로 배정하라는 하교를 받들었습니다. 신 등이 서로 의논하여 마련하였는데, 泰安 등 5개 고을은 각기 한 척씩 만들도록 하고, 그 나머지 保寧結城과 같은 작은 고을은 두 고을이 합쳐 1척을 만들게 하며, 藍浦는 비록 작지만 그 땅에서 배 만드는 재목이 나기 때문에 단독으로 한 척을 만들도록 하며, 瑞山은 본래 정해진 戰船 이외에 防牌船 1척을 더 만들도록 하며, 庇仁·唐津·海美는 각각 방패선 1척씩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¹⁷⁾

渡一船 慶尙左道 西生浦開雲浦釜山浦多大浦水營三船包伊浦 右道唐浦三千鎭加背梁平山浦曲浦尙州浦等 戰船十九隻段 尤甚腐朽 決難出海 督令改造”.

16) 송은일, 「조선전기 고흥지역 수군진의 설치와 수군의 동향」, 『歷史學研究』 64, 湖南史學會, 2016.

17) 『仁祖實錄』 卷31, 13년 9월 26일 癸酉. “頃於榻前 伏承公清道戰船添定之教 臣等相議磨鍊 泰安等五邑 則使之獨造一船 其餘小邑如保寧結城竝二邑 造一船 藍浦雖小 而船材出於其地 故亦令獨造一船 瑞山則元定戰船之外 加定防牌船一艘 庇仁唐津海美 則各造防牌船一艘”.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사이인 인조 13년(1635) 조정에서는 보장처인 강화도에 대한 방비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강화도의 배후지인 충청도에 읍전선의 설치를 결정하였다. 당시 읍전선이라는 명목으로 군현에 배치된 군선은 전선과 방패선 등 두 종류였다.

군선이 수군진과 군현에 모두 배치되면서, 役制도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우선 수군진의 역제 운영의 변화를 살펴보자.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전기에는 호수가 보인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번차에 입각해 수군진에 입역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임진왜란 이후 호수-보인제로 운영되는 이 방식은 해체되고, 수군[防軍]은 호수와 보인에 상관없이 모두 역가만 납부하는 납포군이 되어 버렸다. 그 대신, 수군진에서는 부족한 병력을 給代[고립]하는 방식으로 병력을 충원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확대되자 조정에서는 효종 6년(1655) 이를 추인하였다.

給代는 본래 수군을 대신할 인원을 고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군 숫자만큼 고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군진에서는 정해진 수군[防軍] 숫자보다 적은 인원을 고립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차액을 재정으로 전용하는 일이 늘어났다. 이에 조정에서 防軍에게 포를 거두어 적은 인원을 給代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대신, 이 비용을 陸物價, 邊將의 급료 등 수군진 재정에 이용하는 것을 공식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진을 운영할 병력은 수군진 자체에서 ‘鎭下居民’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다. 이 조치는 전라·경상도의 경우 숙종 30년(1704)과 숙종 42년(1716) 두 차례에 걸쳐 반포된 「양남수군변통절목」에 따라 실현되지만, 충청도의 경우 그 이전에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양남수군변통절목」이 현종 13년(1672) 반포된 湖西詳定例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이다.¹⁸⁾

18) 『各營釐正廳臚錄』奎 15062, 「兩南水軍變通節目」.

읍전선의 병력 충원 방식도 17세기에 접어들면서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수령은 ‘田結調用’하는 방식으로 읍전선의 격군을 충원했다고 한다.¹⁹⁾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여러 문제점을 야기했다. 인조 16년(1638) 서산군수 李旻哲은 ‘본군 전선의 격군은 그 수가 적지 않아 수령이 근근이 抄定하지만 모두 오합지졸이라 군정에 虛疎한 폐단이 있으며 백성들 사이에서도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²⁰⁾ 이에 인조 16년(1638) 1월부터 속오군 중에 일부를 읍전선에 배치하는 조치가 실행되었다.²¹⁾ 홍주와 동래의 읍전선에 130명과 125명이 각기 배치되었다는 기록을 볼 때 읍전선에 배치된 속오군의 숫자는 100명 이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²²⁾

충청 수군의 재원 확보 방안도 논의되었다. 수군이 納布軍이 되면서, 수군 역가는 충청도 수군진의 보편적인 수입원으로 자리매김하였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아울러 둔전·어염세·환곡도 수군진의 대표적인 재원이었다. 중앙 차원에서 수군진의 재원에 대한 규정 정비는 효종 2년(1651) 대동법 실시와 함께 이루어졌다. 대동법의 실시를 기점으로 충청수영에 需米와 箋文價 지급되기 시작하였다. 수미는 기존 수영에 획급했던 아록전과 공수전을 회수하고 대신 지급한 것이었다. 충청수영에 지급된 수미는 대동법 실시 당시 150석 정도였는데, 정조 연간에는 400석까지 늘어났다.²³⁾ 전문가는 본래 元會付로 지출하였는데, 대동법 실시 이후 餘米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전문가는 각 찰 별로 4석 2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충청수영에도 이 정도 금액이 지급되었을 것이다. 이외에도 영송이나 쇄마에 관련된 규정들도

19) 『承政院日記』 63冊, 仁祖 16年 1月 24日.

20) 『承政院日記』 63冊, 仁祖 16年 1月 8日. “戰船格軍 其數不少 守令堇能抄定 而皆是烏合之物 軍政多有虛疏之弊 民間亦有騷擾之事矣”.

21) 『承政院日記』 63冊, 仁祖 16年 1月 24日.

22) 『承政院日記』 117冊, 孝宗 元年 11月 22日; 『承政院日記』 121冊, 孝宗 2年 10月 11日.

23) 『湖西大同事目』 奎1594. “水營則營需米一百五十石 保寧官需與油清紙地等價米一百九十六石十斗 監司支供米五石之外 加給將士支供米八十石”.

정해졌다.²⁴⁾

읍전선의 운영비용에 관한 규정도 대동법 실시로 정비되었다. 군선의 배치 지역이 선정되면, 그 지역의 수령이 목재와 인력을 마련해 군선을 건조하고 유지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에 따른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었다. 건조 비용을 비롯하여 개조·개삭가, 軍器·雜物비용, 훈련비용 등 군선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군현에서 감당했다. 이에 조정에서는 대동법을 실시할 때 읍전선의 개조·개삭기간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대동저치미로 지급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²⁵⁾ 전선·귀선·방패선의 경우 건조 된지 3년이 지나면 개삭하고 이후 2년이 지나면 개조하도록 되어 있다. 즉 5년마다 1번씩 개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²⁶⁾ 귀선의 경우는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지만, 전선의 예에 따라 개조·개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개조·개삭 비용도 전선은 미 500석, 방패선은 46석 5두, 병선은 9석으로 책정되었다. 이 금액은 대동미를 통해 마련했으며, 개조와 개삭에 각각 나누어 쓰도록 되어 있었다. 읍전선의 수조 비용 역시 대동미로 지급하였다.

요컨대, 조선전기 충청 수군은 6개 수군진에 분산 배치되어 있었다. 당시 충청 수군의 주력 선박은 맹선이었고, 호수-보인제에 입각하여 병력이 충원되었다. 이후 충청 수군은 다양한 변화를 겪는다. 수군진의 치폐와 이동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배치된 군선도 맹선에서 전선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읍전선의 설치이다. 이 지역에서는 17세기 전반 군현에 군선의 배치가 확산되었다. 조선전기부터 있었던 수군은 호수-보인제가 해체되면서 성격도 納布軍으로 변화하였다. 수군진에서는 이들이 납부하는 역가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수군진 근처에서 진하거민을 동원하였다. 군현 소속 수군은 본래 전결에서 동원

24) 「嶺南大同事目」古683-5.

25) 송기중, 「대동법의 실시와 軍船役 규정의 정비 - 충청·전라·경상도를 중심으로 -」, 『朝鮮時代史學報』72, 2015.

26) 「湖西大同事目」奎1594.

하였는데 17세기 전반 속오군 중에 일부가 분급되었다. 아울러 대동법의 실시로 충청 수군의 재정에 대한 정비도 이루어졌다.

3. 18세기 전반 충청 수군의 운영실태

가. 군선의 배치방식과 배속인원

충청 수군은 국초에 설치된 이후 복잡한 변화과정을 거쳤다. 다음은 숙종 37~42년(1711~1716) 사이에 작성된 「충청수사근무수첩」을 통해 당시 충청 수군의 군선 배치 현황을 살펴보자.

〈표 2〉 「충청수사근무수첩」에 나타난 18세기 전반 군선 배치 현황

구분	정박처	지휘	품계	대		중		소사	합	선 단	형태
				전	귀	방	병				
수군진	수영	수사	정3	2	1	1	2	7	13	戰1-伺2, 戰1-伺2, 龜1-伺2, 防1-伺1, 兵2	①
	안흥	첨사	총3	1	0	1	1	3	6	戰1-伺2, 防1-伺1, 兵1	②
	소근포	첨사	총3	1	0	1	1	3	6	戰1-伺2, 防1-伺1, 兵1	②
	마량	첨사	총3	1	0	1	1	3	6	戰1-伺2, 防1-伺1, 兵1	②
	평신	첨사	총3	1	0	0	1	2	4	戰1-伺2, 兵1	③
	서천포	만호	총4	1	0	0	1	2	4	戰1-伺2, 兵1	③
	소계			7	1	4	7	20	39		
군현	홍주	목사	정3	1	0	1	1	3	6	戰1-伺2, 防1-伺1, 兵1	②
	서산	군수	총4	1	0	1	1	3	6	戰1-伺2, 防1-伺1, 兵1	②
	서천	군수	총4	1	0	0	1	2	4	戰1-伺2, 兵1	③
	임천	군수	총4	1	0	0	1	2	4	戰1-伺2, 兵1	③
	태안	군수	총4	1	0	0	1	2	4	戰1-伺2, 兵1	③
	하산	군수	총4	1	0	0	1	2	4	戰1-伺2, 兵1	③
	면천	군수	총4	0	0	1	1	1	3	防1-伺1, 兵1	④
	보령	현감	총6	0	0	1	1	1	3	防1-伺1, 兵1	④
	비인	현감	총6	0	0	1	1	1	3	防1-伺1, 兵1	④
	남포	현감	총6	0	0	1	1	1	3	防1-伺1, 兵1	④
	결성	현감	총6	0	0	1	1	1	3	防1-伺1, 兵1	④
	당진	현감	총6	0	0	1	1	1	3	防1-伺1, 兵1	④
	해미	현감	총6	0	0	1	1	1	3	防1-伺1, 兵1	④
		소계			13	1	12	19	40	49	
	합계			13	1	13	20	41	88		

* 典據 : 「충청수사근무수첩」 신해양 219,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당시 전라·경상도 수군은 전선·귀선·병선·사후선 등 네 종류의 군선만 보유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에 비해 경기·황해도 수군은 전라·경상도에 배치된 船鍾 이외에도 거도선·맹선·협선 등 소규모 선박들도 다량으로 보유하였다. 18세기 전반 발간된 「충청수사근무수첩」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충청도 수군진에는 전선 13척, 귀선 1척, 방패선 13척, 병선 20척, 사후선 41척 등 총 88척이 배치되어 있었다. 충청 수군이 보유한 군선은 그 구성 자체로만 보면 전라·경상도 수군과 유사하다. 하지만 전선이 대부분이었던 전라·경상도 수군에 비해, 이 지역 수군은 방패선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²⁷⁾

전술한 바와 같이 충청 수군은 충청도 자체 방어를 담당하면서도 전라·경상도 수군을 지원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므로 충청 수군이 전라·경상도 수군과 동일한 지휘체제에 편성되어 작전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선종을 운영하는 것이 유리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충청 수군은 조석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전선과 같은 대형 군선 보다는 방패선과 같은 중형 군선을 운영하는 것이 편리한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므로 충청 수군의 군선 배치는 충청 수군의 전략적 상황과 지리적 요인이 반영된 것이었다.

충청 수군의 군선 배치 형태는 크게 네 가지였다. ①번은 전선 2척-귀선 1척-방패선 2척-병선 2척-사후선 7척이 배치된 형태를 말한다. 이 형태는 충청수영 밖에 없다. 수영은 충청 수군의 총 사령부이기 때문에 다른 수군진이나 군현 보다 많은 군선이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번은 전선 1척-방패선 1척-병선 1척-사후선 3척이 배치된 형태를 말한다. 안흥·소근포·마량 등 수군진과 홍주·서산 등 총 5곳이 이에 해당한다. ③번은 전선 1척-병선 1척-사후선 3척이 배치된 형태를 말한다. 평신·서천포 등 수군진과 서천·임천·태안·한산 등 군현 총 6곳이 이에 해당한다. ④번은 방패선 1척-병선 1척-사후선 1척이

27) 『各營釐正廳摺錄』奎 15062, 「兩南水軍變通節目」.

배치된 형태를 말한다. 면천·보령·비인·남포·결성·당진·해미 등 8곳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충청 수군의 군선 배치 형태는 지휘관이나 수령의 품계와 일정한 연관성을 가진다. 수영은 충청 수군의 최고 사령부로 고위직 무관인 정 3품 수사가 파견되기 때문에, ①번 형태로 군선이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첨사진은 종 3품 첨절제사가 파견되었기 때문에 ②번 형태로 군선이 배치된 것으로 보이며, 만호진은 종 4품 만호가 파견되었기 때문에 ③번 형태로 군선이 배치된 것으로 생각된다. 군현의 경우도 수령의 품계가 높을수록 보유 군선 수가 많다. 다만 군현의 수령은 전임 지휘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수군진 보다는 한 등급 낮게 군선이 배치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정 3품 목사가 파견되는 牧에는 ②번 형태로, 종 4품 군수가 파견되는 郡에는 ③번 형태로, 종 6품 현감이 파견되는 縣에는 ④번 형태로 군선이 배치되었다.

하지만 平薪, 瑞山, 泗川 등 세 邑鎭은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평신진은 첨절제사진임에도 불구하고 ②번 형태가 아닌 ③번 형태로 군선이 배치되었다. 이는 가장 후대에 생긴 진이기 때문에 처음 배치될 때 성립된 원칙에서 벗어났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서산은 군수가 파견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③번 형태가 아닌 ②번 형태로 군선이 배치되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조 13년(1635) 비변사의 조치에 의한 것이었는데, 서산의 경제력이 충청도 다른 군에 비해 월등히 컸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²⁸⁾ 면천은 본래 ③번 형태로 군선이 배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면천에서 수영까지는 ‘육로로 하루밖에 걸리지 않지만 수로를 경유하면 약 15일 정도가 소요되었고 수로도 심히 좋지 않아서’, 수조를 실시할

28) 군선이 배치된 군현의 규모를 『輿地圖書』를 통해 살펴보면, 서산의 邑勢가 다른 郡에 비해 현격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부표 2 참조). 이러한 상황은 아무래도 인조 13년(1635)에도 비슷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조정에서는 서산에 홍주와 같이 방패선을 1척 더 배치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때 침몰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²⁹⁾ 면천의 군선 배치 형태가 ③번에서 ④번으로 변화한 것도 이러한 조건이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하다.

충청 수군은 유사시 몇 척의 군선을 船團[艇]으로 편성해 출동했다. 그런데, 충청 수군의 선단은 전라도와 경상도 보다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전라·경상도 수군의 경우 統營上船 등 일부를 제외하고, 전선 1척 당 병선 1척과 사후선 2척이 선단으로 편성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에 비해 충청 수군은 전선에 사후선 2척이 배정된 전선 선단과 귀선 1척에 사후선 2척이 배정된 귀선 선단, 그리고 방패선 1척에 사후선 1척이 배정된 방패선 선단 등 세 종류의 선단을 보유하고 있다.³⁰⁾ 이를 바탕으로 수군진과 군현의 군선을 편대로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번 형태는 전선 선단 2개, 귀선 선단 1개, 방패선 선단 1개 등 4개의 선단이 배치된 것이었다. ②번 형태는 전선 선단 1개, 방패선 선단 1개 등 2개 선단이 배치된 것이었다. ③번 형태는 전선 선단 1개만 있는 것이다. ④번 형태는 방패선 선단 1개만 배치된 것이었다. 이렇게 선단을 구성하고 나면 병선이 남는다. 병선은 수영에 2척, 이외의 군현과 수군진에는 1척씩 일괄적으로 배정되었다.

군선이 배치되고 나면, 군선 숫자를 기준으로 병력을 배치했다. 18세기 전반은 수군[防軍]이 납포화 된 이후이기 때문에, 군선의 배속 인원을 속오군이나 ‘鎭下居民’으로 조달했다고 할 수 있다.³¹⁾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자료의 미비로 인해 충청 수군이 보유한 군선의

29) 『承政院日記』 131冊, 孝宗 5年 4月 25日. “自陸路往水營 不過一日程 由水路 則幾費半月 而所經水路 甚爲險惡 故今番往赴習操時 船敗淨死者甚多 日後之患 亦甚可慮”.

30) 충청 수군의 선단 구성이 전라·경상도 수군의 선단 구성과 다르다는 사실은 알려져 왔다. 하지만 구체적인 선단의 편제 방식에 대해서는 해명되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충청수사근무수첩」의 ‘伺候船則戰船例有二隻, 防船例有一隻焉’이라는 언급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충청수사근무수첩」 해양219,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31) 19세기 각종 읍지에서는 이들을 ‘舟師軍’이라는 명칭으로 수록하고 있다.

배속인원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충청수사근무수첩」을 통해 18세기 전반의 군선 별 배속인원을 파악할 수 있다.

〈표 3〉 「충청수사근무수첩」에 기록된 군선 별 배속인원

분류	병종	「충청수사근무수첩」							전라·경상도			
		一戰船	二戰船	巨鎗戰船	龜船	防牌船	兵船	伺候船	戰船	龜船	兵船	伺候船
지휘부	代將	0	0	1	1	1	0	0	·	·	·	·
	知(旗)毅官	4	2	0	0	0	0	0	·	·	·	·
	旗牌官	2	2	0	1	0	0	0	·	·	·	·
	捕盜官	2	2	2	2	2	0	0	·	·	·	·
	教師	2	2	1	1	1	0	0	·	·	·	·
	訓導	1	1	1	1	1	0	0	·	·	·	·
	火教	1	1	1	1	1	0	0	·	·	·	·
전투부	射手	20	20	20	20	10	10	0	18	14	0	0
	砲手	24	24	20	18	5	10	1	24	24	2	0
	火砲手	11	10	9	9	2	0	0	10	8	0	0
운항부	舞上	1	1	1	0	0	0	0	2	2	0	0
	繚手	1	1	1	1	1	1	0	2	2	0	0
	舵手	1	1	1	1	1	1	0	2	2	1	1
	碇手	1	1	1	1	1	1	0	2	2	0	0
	格軍	100	100	100	90	30	20	5	100	90	14	4
의장부	旗手	48	33	12	6	12	0	0	·	·	·	·
	軍牢	10	8	0	0	0	0	0	·	·	·	·
	羅將	4	4	0	0	0	0	0	·	·	·	·
	吹手	6	6	6	3	2	0	0	·	·	·	·
	錚手	1	1	1	1	1	0	0	·	·	·	·
	鑼手	1	0	0	0	0	0	0	·	·	·	·
	鼓手	2	2	1	2	1	0	0	·	·	·	·
細樂手	3	0	0	0	0	0	0	·	·	·	·	
합계		246	222	179	159	72	43	6	·	·	·	·

典據: 「충청수사근무수첩」 신해양 219,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各營釐正廳摺錄』奎 15062, 「兩南水軍變通節目」.

이 수첩에서는 전선을 一戰船, 二戰船, 邑鎭戰船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一戰船과 二戰船은 수사와 우후가 탑승하는 전선이었다. 邑鎭戰船은 군현과 수군진에 배치된 일반적인 전선이었다. 배속된 인원도 전선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달랐다. 보통 一戰船과 二戰船의 배속인원이 邑鎭戰船에 비해 많았다. 탑승하는 수군지휘관의 격에 따라 군선의 규모가 달랐고, 이에 승선인원도 차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읍진전선이라고 하더라도 배속인원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었다. 격군 조항에는 ‘舒川浦則次戰艇故十名減’이라고 부기되어 있다. 서천포 전선은 읍진전선에 비해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100명이 아닌 격군 90명이 승선한다고 되어 있다.³²⁾ 수영을 제외한 다섯 수군진에 지구관을 1명씩 가설한다는 규정도 있다. 특히 안흥진은 鼓手, 舞上, 知穀官을 각각 1명씩 추가 배속하고, 隨率은 3명을 추가 배속한다는 규정도 있다. 이는 안흥진 첨사가 守城將과 管餉將을 겸임하여 지위가 다른 첨사에 비해 높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다.

방패선도 마찬가지였다. 방패선의 旗牌官 항목에는 ‘營一餘無’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수영 소속 방패선에만 기패관이 1명 배속되고, 나머지 방패선에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방패선의 砲手 항목에는 ‘五營十五’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보통 포수가 5명 배치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영에 소속된 방패선만 15명이 배속된다는 뜻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방패선의 화포수 규정에는 ‘二營及唐津三’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통 포수가 2명 배치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영과 당진의 방패선에는 3명이 배속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군선에 배속된 병종은 총 23개였다. 배속 병종의 역할은 그 명칭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지휘부는 代將·知(旗)穀官·旗牌官·捕盜官·教師·訓導·火教[火砲教師] 등이 속한다. 이들은 명령을 내리고 통신을 수신하며, 군선의 이동 방향을 규정하고, 배속 인원에 대한 기강을 세

32) 「충청수사수군무수첩」 신해양 219,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우는 등의 업무를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전투부는 射手·砲手·火砲手 등이 속한다. 이들은 직접 무기를 들고 공격하는 역할을 하였다. 의장부는 旗手·軍牢·羅將·吹手·錚手·鑼手·鼓手·細樂手 등이 속한다. 이들은 아무래도 배의 입출항시에 의장행사를 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³³⁾ 운항부는 舞上·繚手·舵手·碇手·格軍 등이 속한다. 이들은 지휘부의 명령을 받아 돛과 닻을 관리하며 노를 젓는 등 군선의 운항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았다.

격군의 배속 방식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충청도 전선은 櫓가 좌우에 20착이 설치되었는데, 1착 당 격군 5명이 배속되었다. 귀선은 노가 좌우에 총 18착이 설치되었는데, 1착 당 격군 5명이 배속되었다. 방패선은 노가 좌·우에 총 8착이 설치되었는데, 1착 당 격군 4명이 배속되었다. 다만 船尾의 노 2착에는 격군이 3명 배속되었다. 병선은 노가 좌·우에 4착이 배속되었는데, 1拏 당 격군 5명이 배치되었다. 사후선은 노가 한쪽에 1착 밖에 없는데 격군 5명이 배속되었다.³⁴⁾

이제 「충청수사군무수첩」에 규정된 군선 배속인원을 비슷한 시기인 숙종 42년(1716) 「兩南水軍變通節目」과 비교해보자. 그런데, 여기서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은 「양남수군변통절목」에는 군선의 배속인원이 모두 기재된 것이 아니라, 전투부와 운항부의 숫자만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만 한정하여 비교할 수밖에 없다. 충청도 전선의 사수는 정원이 2명 많은 반면, 포수는 4명 적다. 또한 충청도 전선의 타공·요수·정수는 전라·경상도 보다 1명씩 적다. 아울러 충청도 귀선은 전라·경상도에 비해 사수가 6명 많고, 포수가 4명 적으며 화포수가 1명 적다. 사후선의 경우도 격군이 전라·경상도 보다 1명 많다. 충청도 병선에는 사부 10명과 포수 10명이 배속되어 있는데 비해, 전라·경상도 병선은 포수 2명밖에 배속되지 않았다. 격군도 6명 정도

33) 의장부가 전투할 때 실제로 배에 탑승했는지는 알기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34) 「충청수사군무수첩」 신해양 219,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전라·경상도 보다 많이 배속되었다.

요컨대, 18세기 전반 충청 수군은 수군진과 군현에 배치되어 있었다. 충청 수군이 보유한 군선의 선종은 전라·경상도와 비슷하면서도 방패선이 훨씬 많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충청 수군의 군선 배치 실태는 조석간만의 차가 심한 서해안에 위치하여 전선과 같은 대형 군선을 운영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전라·경상도 수군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이었다. 이들의 군선의 배치방식은 네 가지 유형이 있었다. 이들은 선단을 구성하여 전투에 참여했던 것 같은데, 각 선단은 전선과 귀선에는 사후선 2척이 배정되어 있었고, 방선에는 1척이 배정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병선은 선단에 편성되지 않고 별도로 배정되었다. 각 군선의 배속인원은 지휘부, 전투부, 운항부, 의장부 등으로 나누어졌다. 군선의 배속인원은 전라·경상도와 비슷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병선만 차이를 보인다.

1) 충청수영의 재정 운영

「충청수사근무수첩」에는 군선 배치 형태와 군선 별 승선 인원 이외에도 충청수영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다음 표는 수첩에 기록된 충청수영의 수입을 도표화 한 것이다.

〈표 4〉 「충청수사근무수첩」에 기록된 충청수영의 수입

	재 원	소득 획득 방식
대동	錢文價	1장 당 米 2石 6斗씩 보령대동미로 倉減
역가	水軍役價 新選戶	수군 3,202명
환곡	軍餉米 1,531石 6斗 元山倉 各穀 700여석	城内 男丁과 女丁 등 1,809명에게 분급 島民에게 授受하여 取贖한 후 重記에 회부할 것
둔전	陸屯田 9石落只 元山島田 54石落只 雀 13石落只	上等 10斗 中等 7斗 下等 5斗, 每年收稅 收稅取用, 전체 수입 200여석
漁鹽	漁箭 2庫 鹽盆 25庫	.
기타	元山倉 牛 28隻, 安眠島 雄牛 5隻	.

*典據 : 「충청수사근무수첩」 신해양 219,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당시 충청수영의 수입은 대동, 역가, 환곡, 둔전, 漁鹽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대동은 대동미 중에 일부가 충청수영으로 지급된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충청수영에 이전된 대동미는 需米와 箋文價 등 두 가지가 있었다. 이중 需米 기록은 누락된 것으로 생각되며, 箋文 1장 당 米 2석 6두 5승을 보령대동미로 회감한다는 규정만 남아 있다. 역가는 수군과 新選戶 등 두 개 병종에서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첩에서는 당시 충청 수군[防軍]의 인원수인 3,202명만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防軍給代’라는 표현이 빈번하게 보이는 것으로 충청수영에서는 수군역가를 수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숙종 37년~42년(1711~1716) 사이 충청 수군의 역가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2필이었다. 그러므로 잡탈이 없다면, 충청수영에서 걷는 수군역가는 6,404필로 산출할 수 있다. 또한 충청도에는 전라·경상도와 달리 新選戶가 수영에 배치되어 있었다. 이들도 역가를 납부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1인당 역가나 역가 총액 등은 자료의 마멸로 알 수 없다.³⁵⁾ 이 자료보다 다소 늦은 시기에 발간된 『양역총수』에 따르면 충청수영에 배속된 신선호는 호수 90명과 보인 180명 등 총 270명이었다고 한다. 이들이 2필씩 납부했다 가정한다면, 540필 정도로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³⁶⁾

충청수영이 운영하는 還穀은 軍餉米와 元山倉各穀 등 두 가지가 있었다. 군향미는 성내 백성 1,809명에게 분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성민들을 대상으로 운영된 환곡인 것 같다. 軍餉米를 분급해 모곡을 걷는다는 규정은 발견되지 않으나, 당대 환곡 운영을 고려해 볼 때 모곡을 수취했을 가능성이 높다. 모곡을 수취했다면, 모곡 중에 일부는 軍餉米의 원곡에 합산되었을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충청수영의 재정으로 쓰였을 것이다. 元山倉穀은 700여 석인데, 원산도민에게

35) 신선호·보의 인원수를 기록한 부분은 마모되어서 알아볼 수 없었다.

36) 『良役實摠』 「忠淸道良役都數」.

주고받아 取殖하여 重記에 會付하도록 되어 있다.

충청수영은 자체적으로 屯田도 운영하고 있었다. 둔전은 陸屯田과 元山島 屯田 두 가지로 구분된다. 육둔전은 아무래도 수영 근처 내륙에 위치한 둔전으로 생각된다. 이 둔전은 9石落只의 규모였었다. 충청수영에서는 토질을 上等·中等·下等으로 메기고 이에 따른 수세액을 10 두·7두·5두로 규정하고 있다. 원산도 둔전의 면적은 전 54석락지와 답 13석락지 등 67석락지였다. 1년 소출은 200여석이다. 漁箭은 2庫인데, 1고는 元山柳箭에 있고, 또 다른 1고는 賓島 근처의 草箭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유전이나 초전은 모두 원산도 지명으로 추정된다. 염분은 25고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전이나 염분의 수세액은 알 수 없다. 기타로 소를 대여해주고 여기에서 생기는 수입도 있었다.

이렇게 마련한 비용은 다시 여러 명목으로 지출되었다. 「충청수사근무수첩」에 기록된 충청수영의 지출도 그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전부 기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18세기 충청수영의 관련 자료가 전무한 상태기 때문에 이 수첩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표 5〉 「충청수사근무수첩」에 기록된 충청수영의 지출현황

	분 류	명 목	지출액과 지출방식
상납	國馬	作紙價·牽軍給代	7疋
		馱價	1同 25疋
자체	고용	給代	主鎖 78同 6疋 虞候 10同 40疋 火砲教師 36疋 營奴婢 4同 16疋 備局書吏 3疋
		영승	刷馬價
			給代

	분 류	명 목	지출액과 지출방식
자 체		改造改梁價	戰船 新造價 4同 31疋, 改梁價 1同 44疋 防船 新造價 1同 20疋, 改梁價 27疋 兵船 新造價 1同 3疋, 改梁價 16疋
		物品價 (陸物價)	生葛 400斤 逐年措備 400斤價, 1疋式 仇乙 300斤 山麻 50斤 雉羽 食鼎 火藥 12斤 半 草芑 2番 逐年措備 草席 12立 逐年措備 眞席 7立 間年措備 瓢子 30介 隨破措備 柳窠 12介 隨破措備 生麻 33斤 間一年措備 100斤價 3疋 船食 14斤 間三年措備 10斤價 1疋 油芑 戰船5番 防船2番 1番價 6斗. 上衙鋪陳 및 塗梢價 42疋 二衙鋪陳 및 塗梢價 15疋
	수조	犒饋牛價	30疋
	수토	給代	격군 14명, 매달 給代價 28疋
	호송	以南以北護送	격군 13명, 3달 동안 給代價 1同 34疋
		鎮境護送	격군 6명, 3달 동안 給代價 36疋
	기타	司僕寺分養馬	分定馬 3匹 중 1匹을 故失하면 價木 30疋, 贖木 4疋을 餘布會減
		軍務往來馬價	우후·침사·만호 등이 軍務往來時 騎馬價와 卜馬價는 餘布會減, 馬 1匹 당 1疋
		甲冑價	14疋 34尺
		火箭紙5張價	1疋
刑名價		9疋	
	虞候解由木	7疋	

*典據 : 「충청수사군무수첩」 신해양 219,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충청수영의 지출 범주는 일곱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 國馬의 上送비용이다. 충청수영에서는 중앙정부에 말을 상납하였다. 국마

상납에 따른 作紙價 및 牽軍의 급대비용 모두 충청수영에서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給代이다. 숙종 42년(1712) 발간된 「양남수군변통절목」에 따르면, 각 수영별로 본영과 우후영으로 나누고, 본영은 81동, 우후영은 10동 20필로 규정하고 있다.³⁷⁾ 이 수첩에는 本營[主鎮]에서 고립하는 비용은 78동 6필이며 우후영에서 고립하는 비용은 10동 40필이었다. 이외에 「양남수군변통절목」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급대 관련 규정도 있는데, 火砲教師의 급대비용이 36필로 규정되어 있고, 奴婢에 대한 급대비용 4동 16필과 비변사 서리에 대한 급대비용 3필도 기록되어 있다.

셋째, 영송비용이다. 迎送은 수령이 부임하는 것을 맞이하는 행사이다. 본래 충청수영에서는 수사의 영송비용을 군현에 부과하여 조달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은 대동법의 실시로 인해 금지되었기 때문에, 수영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³⁸⁾ 이 자료에 책정된 영송비용은 크게 刷馬價와 인건비 두 가지이다. 수사와 우후를 영송할 소요되는 말이 각각 15匹과 5匹이 책정되어 있고, 말 1필 당 馱價로 餘布 5필을 지급하였다. 아울러 수령을 환영하는 인원이나 직접 서울에 가서 데려오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도 규정되었다.

넷째, 군선의 운영비용이다. 군선의 운영비용은 크게 군선의 개조·개삭가와 물품 마련비용 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대동법 실시와 함께 규정된 개조·개삭 기간은 소나무 부족, 군선 관리 기술의 발달, 대동저치미 부족으로 인해 개삭횟수가 늘어나고 개조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³⁹⁾ 「충청수사근무수첩」에 따르면, 전선은 처음 건조한 지 30개월이 지나면 1차 개삭을 하고, 다시 30개월이 지나면 2차 개삭

37) 『備邊司謄錄』 69冊, 肅宗 42年 10月 24日 「兩南水軍變通節目」.

38) 「湖西大同事目」 奎1594, “三營需米 既已從優題給 監兵水使都事所率營吏 新舊迎送留京糧 各項營中貿易之物 皆以營米上下 切勿分定於列邑爲白乎矣 海運判官所用紙地乙良 依前例輪回分定於各邑 其價以大同米計減爲白齊”.

39) 송기중, 앞의 논문.

[再改槩]을 하였다. 그리고 이후 30개월이 지난 7년 6개월 만에 改造 하도록 되어 있었다. 7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선의 상태가 좋다면 20개월까지 개조를 늦출 수도 있었다. 방패선은 처음 건조한 후 36개월이 지나면 첫 번째 개삭을 하고, 다시 36개월이 지나면 두 번째 개삭을 했으며, 이후 36개월이 지난 9년 만에 개조하도록 되어 있었다. 방패선도 전선과 마찬가지로 9년이 지났음에도 상태가 좋다면 이후 20개월까지 개조 기간을 늦출 수 있었다. 병선은 처음 건조된 지 36개월을 간격으로 3차례 개삭을 하고 12년이 지나면 개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병선도 기한이 다 찼을 때도 상태가 좋으면 20개월까지 개조를 늦출 수 있었다.

개조·개삭 기간 규정은 수군진이나 군현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되는데 비해 비용의 조달 방식은 양자 간에 차이를 보인다. 수첩에서는 군현 군선의 개조·개삭가를 대동미로 회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비해, 수군진의 군선에는 별다른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 비용을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개조·개삭가의 지급 명색도 수군진과 군현의 군선이 布와 米로 각각 달랐다. 당시 군현 전선의 新造價[改造價]는 187석 7두이며, 改槩價는 93석 11두였다. 방패선의 신조가는 98석 1두이고 개삭가는 38석 1두이며, 병선의 개조가는 18석 11두이고 개삭가는 9석 5두였다(刀·습·勻생략). 이에 비해 수군진 전선의 신조가는 4동 31필이며 개삭가 1동 44필이었다. 방패선의 신조가는 1동 20필이고 개삭가는 27필이며, 병선의 신조가는 1동 3필이며 개삭가는 16필이었다. 충청수영에서는 이 규정에 맞추어 개조·개삭가를 지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군선에 필요한 물품을 마련하는 방안도 수록되어 있다. 특히 陸物[六物]의 마련 방안이 관심을 끈다. 육물은 내륙지역에서 주로 산출되었기 때문에 陸物이라고 하거나, 주로 여섯 가지 물품을 말하기 때문에 六物이라고 한다. 陸物은 生葛·生麻·眞席·草蓆·瓢子·藁索 등이 주로

거론되는데, 군선에 들어가는 필수 물품이었다.⁴⁰⁾ 생마와 생갈은 닛줄과 밧줄의 원료였다. 진석·백석 등 席類는 돛을 만드는데 쓰는 돛자리였다. 유단은 거적으로 군선을 덮는데 쓰거나 火攻에 이용하는데 쓰기도 한다. 표자는 급수통을 만드는데 쓰였다.⁴¹⁾ 고삭은 밧줄의 한 종류로 생각되지만 배에서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알 수 없다. 육물은 17세기 전반만 하더라도 본래 수군들에게 科外로 걷는 것이었는데, 수군의 부담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늘어나자 수군진에서 자체 재원으로 이들을 구입하는 형태로 마련 방식이 변모하였다.

육물의 마련 방식은 逐年措備, 間年措備, 隨破措備 등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져 있다. 축년조비와 간년조비는 매년 혹은 2~3년 마다 이 물품들을 새 물품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해석된다. 수파조비는 손상이 있으면 새 물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모든 물품에서는 아니지만, 육물의 가격이 제시된 경우도 있다. 생갈 400근의 구입가는 1필이며 생마 100근 값은 3疋이었다. 다른 물품들의 구입가는 알 수 없다. 이러한 육물 이외에도 草席·仇乙皮 등의 물품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上衙鋪陳 및 塗槽加 二衙鋪陳 및 塗槽加 등도 기록되어 있다. 이 비용은 수영에 정박한 一戰船과 二戰船의 板屋에 설치된 돛자리나 도배 비용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각종 물품이 기록되어 있었다.

다섯째, 水操비용이다. 수조는 1년에 두 번 열렸는데, 봄 훈련은 통제영이나 통어영에서 휘하 수군이 합조 형태로 실시하였고, 가을 훈련은 수영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었다.⁴²⁾ 17세기만 하더라도 충청 수군은 이 원칙을 지켰다. 하지만 18세기 후반 이후로는 충청 수군은 봄 훈련을 할 때 통제영으로 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40) 육물의 물종은 자료마다 약간 차이가 있다. 어떤 자료에서는 藁索이 빠지고 柳篋가 들어가기도 한다.

41) 송기중, 「17~18세기 전반 水軍役制의 운영과 변화 -『兩南水軍變通節目』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76, 2011.

42) 李敏雄, 「17~18세기 水操 運營의 一例 考察 -규장각 소장본 경상좌수영 《水操笏記》를 중심으로-」, 『軍史』 38, 1999.

일반적이었다. 수조에서 가장 돈이 드는 것은 槁饋였다. 호궤는 훈련이 끝나면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하는 연회였다. 이 연회에서는 음식 공급을 위해 소를 잡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값도 기록되었다.

여섯째, 搜討비용이다. 수토는 해안선을 수색하는 군사 활동이다. 충청수영에서는 충청도 해안을 上道와 下道로 구분하였다. 上道는 태안에서 당진까지 권역이다. 수색해야 할 섬은 居兒島·萬大島·蔚島·加次乙島·大難知島·小難知島 등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上道の 수토는 서산·태안·안흥·소근·홍주·결성에 있는 수군들이 담당하였다. 각 군현에 있는 수군들은 1년에 1번씩 수토를 하였고, 수군진의 수군들은 1년에 두 번씩 하였다. 하도는 홍주에서 비인까지의 권역을 말한다. 수색해야 할 섬은 元山島·沙邑時島·龍島·鹿島·於靑島·古代島·夫乙毛島·橫巾島·外烟島·竹島 등이라고 기록하였다. 下道の 수토는 보령·남포·비인·마량·서천·서천포·한산에 있는 수군들이 담당했다. 上道와 마찬가지로 下道도 군현에 있는 수군들은 1년에 1번씩 수토를 하였고, 수군진의 수군들은 1년에 두 번씩 수토를 했다. 충청수영에서는 이들 수군진이나 군현과 다르게 별도의 수토선을 두고 매달 수토했다.⁴³⁾ 수토 비용은 별도의 수토선 운영에 따른 인건비라 볼 수 있다.

일곱째, 護送비용이다. 충청도는 서울로 올라가는 조운선이 경유하는 지역이다. 특히 충청도의 안흥량은 難行梁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조운선의 침몰이 심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충청 수군은 조운선 호송을 담당했다. 南道の 호송은 마량첨사가 관할하였고, 北道の 호송은 소근포진 첨사가 담당했다.⁴⁴⁾ 호송비용은 以南以北護送 호송과 鎭境護送 비용 등 두 가지로 형태로 지출되었다. 이 호송비용은 주로 호송선 격군의 급료로 집행되었다. 여덟째, 기타비용이다. 목장관리에 있어 발생한 비용도 규정하고 있다. 만약 사복시 말을 관리하다가 故失이 생긴

43) 「충청수사군무수첩」 신해양 219,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44) 민병선, 앞의 논문, 43쪽.

경우 價木 30疋, 贖木 4疋 등 34疋을 납부했다. 우후·첨사·만호 등 軍務往來 할 때 騎馬價와 卜馬價는 餘布 會減하였다. 이외에 화전지 값, 갑주가, 형명가 등에 대한 규정도 보인다.

요컨대, 이 수첩에 기록된 각종 규정을 통해 충청수영의 활동과 재정 운영에 관련된 여러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 전반 충청수영은 크게 대동미, 역가, 환곡, 둔전, 어염 등을 통해 수입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충청수영에서는 여러 활동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자료에서 알 수 있는 수군의 지출 명목은 인건비, 영송, 군선 운영비용, 수조, 수토, 호송, 기타 등으로 범주화 할 수 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충청수사근무수첩」을 통해 충청수영의 운영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충청 수군이 설치된 것은 조선이 건국된 직후였다. 이후 진관체제의 성립과 더불어 충청 수군도 그 형태를 갖추었다. 이 시기 충청 수군은 수영을 중심으로 마량과 소근 진관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맹선을 보유했다. 여기에 입역하는 병력들은 호수-보인제에 입각해 운영되었다. 이렇게 『경국대전』에서 확립된 충청 수군의 모습은 진관의 변화, 군선의 재배치, 병력의 운영실태의 변화 등을 겪게 되었다. 파지포와 당진포가 폐지되고 안흥진과 평신진이 새롭게 설치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군선도 맹선에서 전선으로 교체되고, 군현에도 전선이 배치되었다. 수군역제도 개편되어, 수군이 대부분 납포군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역가를 거두어 병력을 급대[고립]하고, 진하거민을 동원하는 체제가 갖추어졌다. 또한 새롭게 설치된 읍전선의 승선 인원에 속 오군이 동원되는 조치도 있었다. 아울러 대동법 실시로 인해 충청 수군의

재정에 대한 정비도 일정부분 진행되었다.

18세기 발간된 「충청수사군무수첩」에는 이러한 변화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18세기 전반 당시 충청수영·안흥·소근포·마량·평신·서천포 등 6개 수군진과 홍주·서산·서천·임천·태안·한산·면천·보령·비인·남포·결성·당진·해미 등 13개 군현에 수군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들 수군진과 군현에 군선이 배치된 형태는 네 가지였다. 전선 2척-귀선 1척-방패선 1척-병선 2척-사후선 7척이 배치된 ①번 형태, 전선 1척-방패선 1척-병선 1척-사후선 3척으로 배치된 ②번 형태, 전선 1척-병선 1척-사후선 2척이 배치된 ③번 형태, 방패선 1척-병선 1척-사후선 1척이 배치된 ④번 형태가 그것이다. 이러한 군선 배치는 충청도의 전략적 상황과 지리적 요건을 모두 고려한 것이었다.

조정에서는 수령이나 수군지휘관의 품계를 가만하여 군선의 배치방식을 결정하였다. 이들은 다시 선단으로 편성되어 전투에 임했다. 전선에는 사후선 2척이 배정되고, 방패선은 사후선 1척이 배정되었다. 병선은 전라·경상도와 달리 선단으로 편성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선단 구성은 전선 1척에 병선 1척과 사후선 2척이 배정되는 전라·경상도 수군과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충청도에서 병선이 선단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당시 군선의 배속된 인원은 크게 지휘부, 전투부, 운항부, 의장부 등으로 구분된다. 비슷한 시기에 발간된 「양남수군변통절목」의 군선 승선 인원과 비교해보면, 병선만 약간 차이를 보일 뿐 대부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군선과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적 토대를 갖추는 것도 중요했다. 당시 충청수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원을 얻고 있었다. 중앙정부에서는 대동저치미를 지원했다. 수군과 新選戶에게 걷는 역가도 충청수영의 주요 수입원이었다. 군향미와 원산창곡을 분급하여 취식하는 것도 재정운영의 한 방편이었다. 원산도에 둔전을 건설하여 곡식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여러 군데에 재원이 투입

되었다. 중앙상납에 따른 비용마련, 각종 인건비, 수사와 우후 영송에 따른 재원, 군선 유지를 위한 개조·개삭가 및 각종 물품 구비, 수조·수토·호송 등 군사 활동에 따른 비용이 그것이다.

이렇듯 「충청수사근무수첩」을 통해 충청 수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이 자료의 발견으로 충청 수군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자료가 작성된 이후 충청 수군은 두 가지 변화를 겪게 된다. 첫째, 전선의 숫자가 줄어들고 방패선과 귀선 중심의 방어체제가 구축된다는 것이다. 이는 충청 수군이 일본군과 같이 대규모의 병력과 전투에 대비하는 것 보다 오히려 충청도 자체 방어에 치중한다는 전략적 접근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둘째, 균역법의 실시로 수군역가가 2필에서 1필로 줄어들고 여기에 따라 감필급대가 제공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군에 대한 감필급대는 균역법 실시에 따른 손실보다 부족한 것이었다. 균역법의 실시는 어염세의 손실로 야기하였는데 충청수영에는 이에 대한 급대가 지급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충청수영은 재정부족 상황에 놓이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투고일 : 2017. 10. 9, 심사수정일 : 2017. 12. 19, 게재확정일 : 2018. 2. 22)

주제어 : 충청수군, 전선, 사후선, 수영, 안흥진

〈참 고 문 헌〉

- 김재근, 「朝鮮初期의 軍船」, 『朝鮮王朝軍船研究』, 일조각, 1976.
- 민병선, 「19世紀 忠淸水營의 運營과 機能」, 중앙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12.
- 송기중, 「17~18세기 전반 水軍役制의 운영과 변화 - 『兩南水軍變通節目』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76, 2011.
UCI : <http://uci.or.kr/G704-000956.2011..76.012>
, 「대동법의 실시와 軍船役 規정의 정비 - 충청·전라·경상도를 중심으로 -」, 『朝鮮時代史學報』 72, 朝鮮時代史學會, 2015.
UCI : <http://uci.or.kr/G704-000303.2015..72.006>
- 李敏雄, 「17~18세기 水操運營의 一例 考察-규장각 소장본 경상좌수영 《水操笏記》를 중심으로-」, 『軍史』 38, 1999.
- 송은일, 「조선전기 고흥지역 水軍鎭의 설치와 水軍의 동향」, 『歷史學研究』 64, 湖南史學會, 2016.
UCI : <http://uci.or.kr/G704-001257.2016..64.001>
- 서태원, 「朝鮮後期 忠淸道 平薪鎭 研究」, 『중앙사론』 34, 중앙사학연구회, 2011.
UCI : <http://uci.or.kr/G704-SER000014688.2011..34.003>
, 「朝鮮後期 忠淸道 安興鎭의 設置와 變遷」, 『歷史와 實學』 50, 역사실학회, 2013.
UCI : <http://uci.or.kr/G704-002032.2013..50.001>
, 「조선후기 충청도 安興鎭의 구조와 기능」, 『歷史와實學』 52, 역사실학회, 2013.
, 「朝鮮時代 忠淸道 所斤浦鎭의 변천」, 『歷史와實學』 61, 歷史實學會, 2016.
UCI : <http://uci.or.kr/G704-002032.2016..61.012>
, 「朝鮮後期 忠淸道 所斤鎭의 구조와 기능」, 『사학연구』 124, 한국사학회, 2016.
UCI : <http://uci.or.kr/G704-001261.2016..124.005>
- 황의천, 「朝鮮時代 忠淸水營과 屬鎭의 위치에 대한 고찰」, 『保寧文化』 16, 보령문화연구회, 2007.
, 「충청수영과 오천」, 『保寧文化』 18, 보령문화연구회, 2009.

〈부표 1〉 충청도 수군진 및 군현의 군선변화

수군진	선박	근무수첩 (1711~1716)	속대전 (1746)	여지도서 (1760)	만기요람 (1808)	영지 (1872)	비고
수영	전선	2	2	2	2	2	
	귀선	1	1	1	1	1	
	방선	1	1	1	1	1	
	병선	2	2	2	2	2	
	사후선	7	7	7	7	7	
안흥	전선	1	1	0	0	0	
	귀선	0	0	1	1	1	
	방선	1	1	1	1	1	
	병선	1	1	1	1	1	
소근포	사후선	3	3	3	3	3	
	전선	1	1	1	1	1	
	귀선	0	0	0	0	0	
	방선	1	1	1	1	1	
마량	병선	1	1	1	1	1	
	사후선	3	3	3	3	3	
	전선	1	1	1	1	1	
	귀선	0	0	0	0	0	
평신	방선	1	1	1	1	1	
	사후선	3	3	3	3	3	
	전선	1	0	0	0	0	
	귀선	0	0	0	0	0	
	방선	0	2	2	2	2	만기요람 오류
서천포	병선	1	1	1	1	1	
	사후선	2	2	2	2	2	
	전선	1	1	1	1	1	
	귀선	0	0	0	0	0	
서천포	방선	0	0	0	0	0	
	병선	1	1	1	1	1	
	사후선	2	2	2	2	2	

홍주	전선	1	1	0	0	0	
	귀선	0	0	1	1	1	
	방선	1	1	1	1	1	
	병선	1	1	1	1	1	
	사후선	3	3	3	3	3	
서산	전선	1	1	0	0	0	
	귀선	0	0	1	1	1	
	방선	1	1	1	1	1	
	병선	1	1	1	1	1	
	사후선	3	3	3	3	3	
서천	전선	1	0	0	0	0	
	귀선	0	0	0	0	0	
	방선	0	2	2	2	2	
	병선	1	1	1	1	1	
	사후선	2	2	2	2	2	
임천	전선	1	0	0	0	0	
	귀선	0	0	0	0	0	
	방선	0	2	2	2	2	
	병선	1	1	1	1	1	
	사후선	2	2	2	2	2	
태안	전선	1	1	0	0	0	
	귀선	0	0	1	1	1	
	방선	0	0	0	0	0	
	병선	1	1	1	1	1	
	사후선	2	2	2	2	2	
한산	전선	1	0	0	0	0	
	귀선	0	0	0	0	0	
	방선	0	2	2	2	2	
	병선	1	1	1	1	1	만기요람 오류
	사후선	2	2	2	2	2	
면천	전선	0	0	0	0	0	
	귀선	0	0	0	0	0	
	방선	1	1	1	1	1	
	병선	1	1	1	1	1	
	사후선	1	1	1	1	1	

보령	전선	0	0	0	0	0
	귀선	0	0	0	0	0
	방선	1	1	1	1	1
	병선	1	1	1	1	1
	사후선	1	1	1	1	1
비인	전선	0	0	0	0	0
	귀선	0	0	0	0	0
	방선	1	1	1	1	1
	병선	1	1	1	1	1
	사후선	1	1	1	1	1
남포	전선	0	0	0	0	0
	귀선	0	0	0	0	0
	방선	1	1	1	1	1
	병선	1	1	1	1	1
	사후선	1	1	1	1	1
결성	전선	0	0	0	0	0
	귀선	0	0	0	0	0
	방선	1	1	1	1	1
	병선	1	1	1	1	1
	사후선	1	1	1	1	1
당진	전선	0	0	0	0	0
	귀선	0	0	0	0	0
	방선	1	1	1	1	1
	병선	1	1	1	1	1
	사후선	1	1	1	1	1
해미	전선	0	0	0	0	0
	귀선	0	0	0	0	0
	방선	1	1	1	1	1
	병선	1	1	1	1	1
	사후선	1	1	1	1	1
합계	전선	13	9	5	5	5
	귀선	1	1	5	5	5
	방선	13	21	21	21	21
	병선	20	20	20	20	20
	사후선	41	41	41	41	41

〈부표 2〉 충청도 군선 배치 지역의 畝勢

지역	읍격	남	여	호	한전(결)	수전(결)	결수 합계
홍주	목사	21,355	27,705	11,591	6,812	5,547	12,359
서산	군수	11,122	13,636	6,620	4,844	2,368	7,212
먼천	군수	7,021	7,409	4,203	3,788	2,149	5,937
서천	군수	6,021	5,560	4,025	2,342	2,937	5,279
임천	군수	8,395	8,594	4,679	1,772	3,433	5,205
태안	군수	7,679	7,195	4,373	3,340	1,405	4,745
한산	군수	6,108	5,412	3,513	1,387	2,759	4,146
보령	현감	7,489	10,029	4,097	2,297	1,432	3,729
당진	현감	6,841	7,273	3,664	2,464	1,218	3,682
해미	현감	4,185	4,776	2,591	2,247	1,234	3,481
결성	현감	1,348	1,368	761	1,930	1,282	3,212
남포	현감	6,836	9,105	4,104	1,540	1,190	2,730
비인	현감	5,172	5,436	3,238	1,071	860	1,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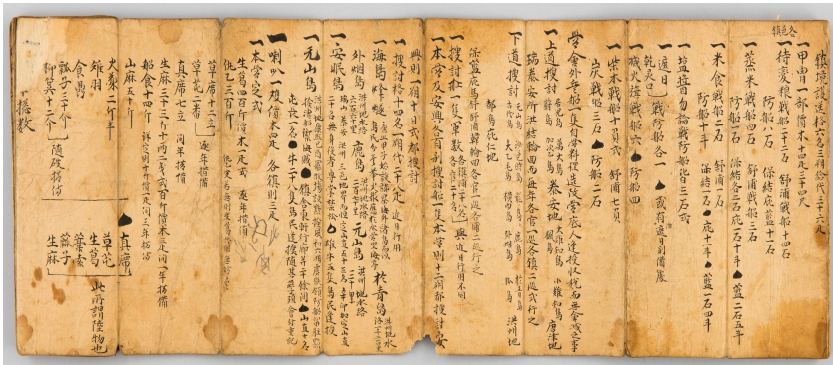
〈그림 1〉 충청수사근무수첩 사진 1



〈그림 2〉 충청수사사근무수첩 사진 2



〈그림 3〉 충청수사사근무수첩 사진 3



<Abstract>

The status and Operational Realities of Naval forces in Chungcheong in the early 18th century

Song, ki-jung

Chungcheong Naval forces has the system with the fulfillment of Jinguwan system. As Japanese Invasion of Korea finished and Tongjeyoung and Tongeryoung were established, they started the duty of supporting both ones. With the change of the command system, Jin was changed and war ships were arranged in Huiha eup. The system of military management was changed, so Hosu-boinje was canceled and Nappo-isolation method was established. In addition, Sokogun was filled for the members of ships in that Eup. The provisional name that will be analyzed in this thesis, The historical duty notes of navy commander in chief of Chungcheong reflects the changes mentioned above well. This material was written in the early 18th century and the time was the most rapid among the materials of Chungcheong naval forces. Through the material, two things can be researched First is the current situation of military ship arrangement of Chungcheong sugun(naval forces) in the early 18th century. One war ship was organized of 2 small ships at that time, whereas one defending ship was organized one small ship. Second is the current financial situation of Chungcheong suyoung. Chungcheong suyoung was raised finance through Yeokga and Dunjeon and paid the items of labor, Youngsong, war ship costs, Sujo, Suto, Hosong, and others.

Key Words : Chungcheong sugun, war ship, sahu ship, suyoung, anheungjin